

이·헤즈볼라 교전 격화...레바논, '제2의 가자' 우려

헤즈볼라, 군사시설 공격...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수습차레 공습 전면전 '공포'...美정부 "확전이 이스라엘 이익 아냐" 자제 촉구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인프라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하면서 양측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헤즈볼라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 일대를 공격했다.

헤즈볼라는 하이파 인근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 어드밴스 디펜스 시스템스'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이스라엘 대공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 개발에 참여한 회사다.

헤즈볼라는 미사일 수습발을 하이파 인근의 라맛 다비드 공군기지로 발사했다고도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자국의 영토를 평소보다 더 깊숙이 공격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헤즈볼라의 공격은 이스라엘 민간 주거지 등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레바논에서 발사체 115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부 도시 키르얏 비알릭의 주거용 건물 2채를 포함해 이스라엘 마을들이 공습에 노출됐다고 이스라엘 국영 육군 라디오는 전했다.

헤즈볼라의 거센 공격에 이스라엘도 반격을 가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수습차레 공격을 가하면서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은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발생한 무선호출기(빠빠)·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크게 격화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이후 교전을 이어왔지만, 그 수준을 '저강도'로 유지하며 확전을 경계해왔다.

하지만 폭발 사건 이후 헤즈볼라가 보복을 전명하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먼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스라엘은 수도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해 이브라힘 아킬 등 헤즈볼라의 군사작전을 주도하는 지휘관들도 살해했다.

이날 아킬의 장례식에서 헤즈볼라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헤즈볼라 2인자 셰이크 나임 카셈은 군중을 향해 어떤 위험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군사적 가능성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이들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더 크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보통보좌관도 A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확대에 이스라엘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측에도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분쟁이 훨씬 더 강력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레바논을 또 다른 가자지구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 세계의 파괴적인 비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궤멸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작년 10월 침공한 가자지구는 이번 세기 들어 최악의 인도주의 재앙을 겪고 있다.

만 1년에 가까워진 가자지구 전쟁에서 숨진 이들은 4만 1000명을 훌쩍 넘었고 인구 220만명 정도의 상당 부분이 인프라가 초도화된 상황에서 피난민으로 고통받고 있다.

유엔의 레바논 담당 특별조정관인 지니 헤니스-플라사르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이 재앙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 양측을 더 안전하게 할 군사적 해법은 아예 없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집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발생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교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머스크 '화성 이주' 꿈 실현되나

"2년 내 무인 우주선 '스페이스X' 5대 발사"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년 안에 5대의 무인 '스타십'(탈·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착륙한다면 4년 후에는 유인 임무가 가능하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유인 탐사는 2년 더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착륙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스페이스X는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우리는 우주 여행자가 되

고 싶은 모든 사람이 화성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핵전쟁이나 슈퍼바이러스 창궐, 인구붕괴 등의 재앙에 대비해 화성에 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인류의 이주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 하에 우주선 시험비행을 해왔다.

그는 지난 4월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5년 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기도 했다.

스타십은 지난 6월 4번째 시험비행 만에 지구 궤도를 비행한 후 폭발 없이 귀환에 성공하면서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52 대 48' 해리스, 트럼프에 오차범위 내 앞서

美 대선 여론조사 조지아주 트럼프 1% 우위...펜실베이니아 '동률'

11월 미국 대선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및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노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CBS가 18~20일 미국 등록 유권자 3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오차범위 ±2.1%포인트) 중 52%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찍겠다고 답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는 이보다 4%포인트 낮은 48%를 기록했다.

7개 경합주의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51%)과 트럼프 전 대통령(49%)간 2%포인트 격차를 기록했다.

CBS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50%를 기록했다.

개별 경합주에 대한 CBS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2%포인트) ▲위스콘신(+2%포인트) ▲네바다(+3%포인트) ▲애리조나(+1%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1%포인트) 등 5곳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었다.

조지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서 있으며 펜실베이니아는 두 후보가 49%로 동률로 조사됐다.

NBC가 13~17일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49%)이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 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을 때 실시된 조사와 비교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6%포인트 더 높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가 1%포인트 줄었다고 NBC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부정평가는 45%)를 기록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판하기 직전인 7월 NBC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에 그쳤다.

이란 탄광서 메탄가스 폭발 70여명 사상

이란 동부에 있는 한 석탄광산에서 21일(현지시간)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이 일어나 최소 5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이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사고는 현지 시간 오후 9시경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540km가량 거리에 있는 남호라산주(주) 타바스의 석탄광산에서 발생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약 70여명이 지하 250m 지점에서 사망하고 있었으며 메탄가스 농도가 높아 구조대 접근이 어렵다고 전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탄광 안에

강한 광부들을 구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번 폭발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남호라산주는 3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란에선 석탄은 연간 350만t가량을 소비하며 매년 자국 광산에서 180만t를 채굴하고 나머지는 수입한다.

2017년에도 한 석탄 광산에서 발생한 폭발로 최소 42명이 숨졌고 2013년에는 두건, 2009년에는 여러 건의 사고로 총 3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m]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4타경 3853	4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2층 씨-223호 [빛가람동,계도333지식산업센터] 45.6000㎡	기타	126,000,000 126,000,000	경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5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3층 씨-321호 [빛가람동,계도333지식산업센터] 45.6000㎡	기타	137,000,000 137,000,000			
	6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3층 씨-328호 [빛가람동,계도333지식산업센터] 45.6000㎡	기타	137,000,000 137,000,000			
	2024타경 3860	1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1층 씨-101호 [빛가람동,계도333지식산업센터] 120.2250㎡ [(주)광주글로벌대표자료부동산매각부동산공매사대공40,000,000원유치권신고서제출,성립여부불명]	기타		598,000,000 598,000,000	경매신청채권자인 천지농업투자조합으로부터 채권처분절차
		2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1층 씨-102호 [빛가람동,계도333지식산업센터] 85.8750㎡	기타		427,000,000 427,000,000	
		7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1층 씨-116호 [빛가람동,계도333지식산업센터] 76.7000㎡ [인접한채 B117호와 구분채없는상가형태,건축물현황 등기중취지특정]	근린시설		381,000,000 381,000,000	건축물대장및건축물현황대상복합현황이항것으로조사
2024타경 3853	7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1층 씨-102호 [빛가람동,계도333지식산업센터] 49.0500㎡	근린시설	265,000,000 265,000,000	경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8	나주시 우정로10, 나동 1층 씨-103호 [빛가람동,계도333지식산업센터] 49.0500㎡	근린시설	322,000,000 322,000,000			
2024타경 72989	1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141-7, 114동 1층 119에이호 [힐스테이트화순] 52.8790㎡	근린시설	434,000,000 434,000,000	경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2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141-7, 114동 2층 212호 [힐스테이트화순] 68.5236㎡	근린시설	748,000,000 748,000,000			
	3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141-7, 114동 2층 213에이호 [힐스테이트화순] 45.4500㎡	근린시설	434,000,000 434,000,000			
	4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141-7, 114동 2층 214에이호 [힐스테이트화순] 45.4500㎡	근린시설	434,000,000 434,000,000			
	5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141-7, 114동 2층 214비호 [힐스테이트화순] 45.4500㎡	근린시설	434,000,000 434,000,000			
	6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141-7, 114동 2층 214에이호 [힐스테이트화순] 45.4500㎡	근린시설	434,000,000 434,000,000			
	7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141-7, 114동 2층 214비호 [힐스테이트화순] 45.4500㎡	근린시설	434,000,000 434,000,000			
	8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141-7, 114동 2층 214비호 [힐스테이트화순] 45.4500㎡	근린시설	434,000,000 434,000,000			
	9	화순군 화순읍 칠중로141-7, 114동 2층 214비호 [힐스테이트화순] 45.4500㎡	근린시설	434,000,000 434,000,000			